

같은 수영장인데...사람잡는 '안전 기준 이분법'

체육시설 수영장엔 안전요원 배치...위탁운영 다이빙풀은 없어 '사각지대' 광주서 프리다이빙 강습생 숨져...체육계 "4년전 사고에도 대책 마련 방치"

지난달 10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실내수영장 내 5m 깊이 '다이빙 풀'에서 프리다이빙(산소통 없이 숨을 참고 잠수하는 스포츠)을 연습하던 수강생 A(여·33)씨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광주일보 1월 2일자 6면)됐다. A씨는 뇌사 상태로 투병하다 지난달 21일 끝내 숨졌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시립 실내수영장 다이빙 풀에서도 스킨스쿠버 연습을 하던 고교 교사 B(여·36)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심 5m 물 속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교체 착용하는 연습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A·B씨가 사고를 당할 때 주변에는 안전 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보 다이빙들이 연습하는 수심 5m 가량의 잠수시설인 실내수영장 내 '다이빙 풀'에서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다이빙 풀은 다른 수영장과 달리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다이빙 풀이 '체육 시설'이 아니라 '수중레저 시설'로서 일반 수영장과 별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흔히 볼 수 있는 '레일이 설치된 수영장'은 경영(鏡泳)을 위한 수영장으로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제대회 공식 종목인 다이빙, 아티스틱 스위밍, 수구 등을 할 수 있는 수영장도 마찬가지다.

이들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신고 절차를 거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법에서는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고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이빙 풀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별도의 시설로 분류된다. 잠수·스킨스쿠버·프리다이빙 등은 체육 활동이 아니라 '수중 레저'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수중레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지난달 10일 사고가 났던 풍암동의 실내수영장 다이빙 풀도 같은 건물 내 있는 경영수영장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영수영장은 광주도시공사가 운영 중이나, 다이빙 풀은 민간사업자가 위탁 운영중이다. 업종도 체육시설업이 아닌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해 정비대여, 스킨스쿠버 등 강좌 등을 하고 있다.

문제는 수중레저법에서는 수영장 전체를 살펴

고 구조활동을 할 안전요원 배치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수중레저법은 사업자 준수 사항으로 '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만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풍암동 다이빙 풀 운영 사업자도 "다이빙 풀 풀장은 법적으로 수영장인 별도의 시설이므로 안전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체육계에서도 성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월계동 다이빙 풀 사고 이후 4년이 지났는데도 안전요원 한 명 배치가 안 되는 등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임효택 전 광주수영연맹 전무이사는 "다이빙 풀은 수심이 깊어 프리다이빙 등 위험한 스포츠를 하는 곳인데, 현행법으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관리자에게 도의적 책임만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대책이 미비하다"며 "물 밖에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주민들에 수천만원 명절 선물 이승옥 전 강진군수 집유 선고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3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 전 군수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2145명에게 6200만원 상당의 명절 과일 선물을 보낸 혐의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 상황실장과 함께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은 이 전 군수가 목인한 사안으로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낙선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택지개발 '벌떼입찰' 의혹 수사 본격화

광주경찰, 건설사 2곳 압수수색

경찰이 공공택지 건설사업을 수주받기 위해 위장계열사를 대거 입찰시키는 일명 '벌떼입찰' 혐의로 광주지역 건설사 2곳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흥건설과 제일건설 관계자 각 1명씩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22일 건설사 본사와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사들이 입찰을 한 지역은 인천과 부산 등지의 LH 택지개발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떼입찰은 공동주택용지 낙찰 확률을 높이며

고 특정 건설사가 계열사 수십 개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을 통한 입찰이 이뤄지는 공공택지사업에서는 벌떼입찰을 하면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 입찰권 행사는 한 건설사당 하나씩만 행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 받은 101개 건설사에 대한 점검 결과 벌떼입찰 정황이 있는 업체 10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광주에 본사가 있는 2개 업체의 수사가 광주경찰청에 배당된 것이다. 호반·우미·대방건설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도 지난 1일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국토부 1차 조사 결과와 압수 자료를 모두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금당산에 고라니가 산다. 고라니가 지난 1일 광주시 남구 금당산 등산로에서 눈 내린 산을 뛰어다니고 있다. 이날 발견된 고라니는 신년 해돋이를 보러 모인 등산객들의 시선에도 이렇듯 아름답고 등산로까지 내려와 먹이 활동을 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서 첫 시작한 '경찰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전국 확대

경찰의 교통정보가 실시간 수준으로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된다.

2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내비게이션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시책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갖고 있는 교통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TMAP, 아이니비, 맵퍼스)에 빠르고 정확히 전달해 시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이 업체에 제공하는 교통정보는 제한속도, 횡단보도 유무, 좌회전·유턴 가능여부, 주정차 금지 구역 등이다.

그동안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연 1~2회 전국 도

로 전수조사로 교통정보를 확인하면서 수시로 추가되고 변경되는 교통정보가 내비게이션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정확한 교통안전정보가 제공되면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만간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자치경찰과 민간기업이 서로 협력해 교통안전과 편의를 크게 향상시킨 우수 사례로 전남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돼 의미가 크다"며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도로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새해부터 전남 곳곳 가족간 범죄사건 잇따라

아내와 다투다 집 불 지르려하고 치매 아버지가 딸에 흥기 휘둘러

새해 첫날부터 전남 곳곳에서 가족 간 범죄 사건이 잇따랐다.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나주경찰은 지난 2일 새벽 2시 4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다투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재물손괴)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말다툼하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라이터로 책에 불을 붙인 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집 내부로 옮겨붙지 않고 바로 꺼졌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등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여수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부친이 친딸에게 흥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

혔다.


여수경찰은 지난 1일 오후 5시께 여수시 국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딸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B(8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B씨의 딸 C(여·67)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약 3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진 B씨는 사건 당일 C씨가 자신의 불건을 훔쳐간다고 의심해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약 14년 동안 B씨를 모시고 살았으며 가족들은 B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h3>전원주택 (1채) → 8,000만</h3>	<h3>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h3>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p>(장성댐 5분) (등산로 있음) (6M도로 접)</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 (6층,7층) = 140평 시세 → 10억 ➡ 급매 7억</p> <p>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td> </tr> <tr> <td>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td> </tr> <tr> <td>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td> </tr> <tr> <td>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2억7,600</td> </tr> <tr> <td>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td> </tr> <tr> <td>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td> </tr> <tr> <td>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td> </tr> <tr> <td>북구윤암동 (아파트)박산블루 ▶ 감정가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td> </tr> </table>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윤암동 (아파트)박산블루 ▶ 감정가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윤암동 (아파트)박산블루 ▶ 감정가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h2>010-6670-9800</h2>		<h2>010-2614-9801</h2>								